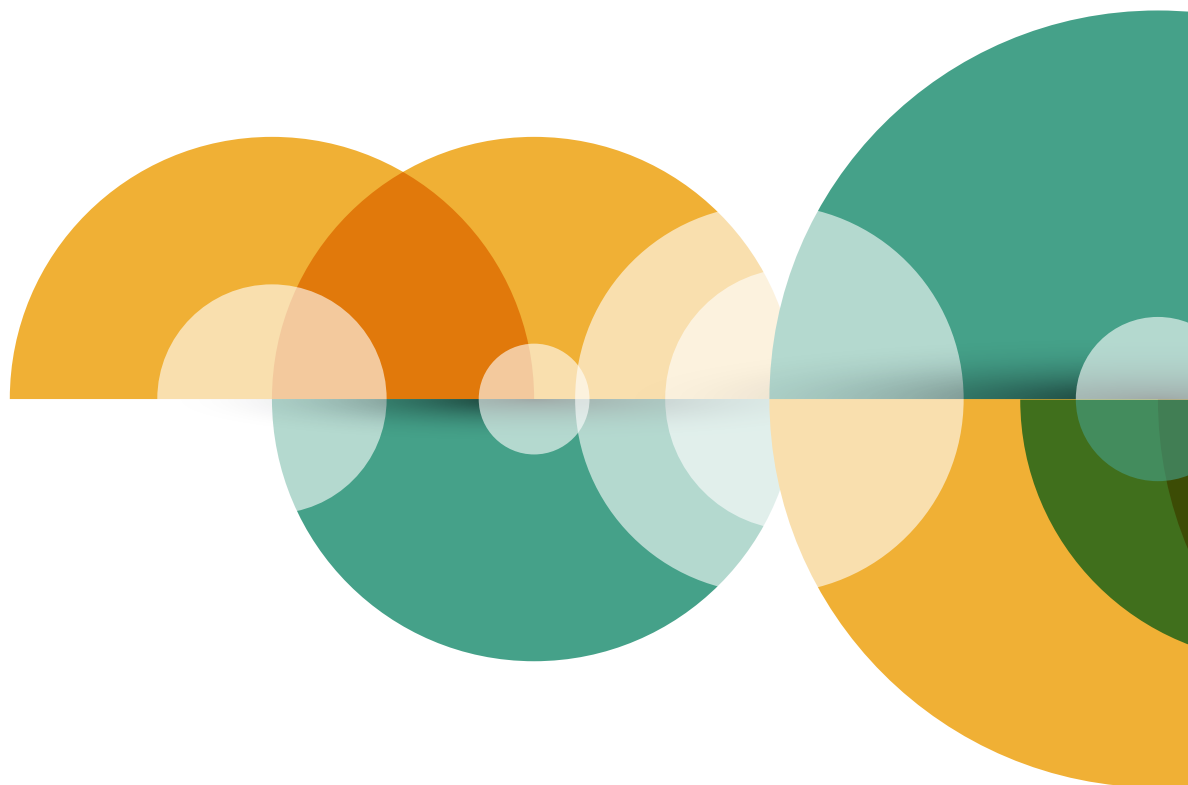


KOSI 중소기업 포커스

저성장시대, 여성벤처기업의 희망과 과제

책임작성 | 이미순 연구위원(02-707-9812, mslee@kosi.re.kr)

※ KOSI 중소기업 포커스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홈페이지(www.kos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목 차

1. 서론
2. 여성벤처기업의 현황 및 중요성
3. 여성벤처기업의 특성
4. 시사점

| 요약

- 저출산·고령화 시대,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해서는 여성 인적자원 활용이 필수
 - 이에 본 고에서는 여성 인적자본 중 여성벤처기업을 중심으로 남성벤처기업과 차별되는 특성 탐색을 통해 여성벤처기업의 희망적 요소를 살펴보고 발전 방안을 모색함
- 우리나라 벤처생태계는 그간 양적·질적 발전이 있었으나,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다양성은 결여
 -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성 자원의 강점이 발휘될 수 있는 기술 및 산업 환경이 도래
 - 여성의 경제 활동과 고학력자 증가로 직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우수 여성 인력이 다수 배출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여성 인적자원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여성 벤처기업의 촉진 환경조성 필요
- 여성벤처기업의 현황 및 특성
 - '20년 기준 여성벤처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28.4억 원으로 전체 벤처기업 (52.9억) 대비 53.7% 수준이며, 평균 고용 규모는 14.3명 수준임
 - 우리나라 기술기반 업종 창업기업 중 41.4%가 여성기업으로 계속해서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벤처확인기업도 전체 벤처기업의 10.7%로 크게 증가

- 고학력 여성인력의 벤처 진입이 증가하고 있고, 남성벤처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R&D인력 보유기업 비중, 기술 수준과 미래 사업 전망에 대한 높은 자신감, 시설 현대화에 대한 적극적 마인드 등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에 희망적 요소로 평가
- 다만, 여성벤처기업의 경우 아직 수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기업 규모 측면에서 열세이고, 해외 수출과 연구인력의 조직화 정도가 미흡하며 낮은 투자유치와 다양하지 못한 자금조달처 등은 한계점으로 작용

■ (제언 1) 여성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및 기반 구축 방안

- 그간 여성벤처기업 관련 체계적인 자료 축적과 학문적 접근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여성벤처기업 관련 조사·연구 활성화 필요
- 여성벤처기업의 창업 촉진을 위해 혁신형 여성 창업이 어디서 많이 일어나는지 철저한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대상(Target)을 명확히 설정하여 정책 추진
- 해외 여성 기술창업 모니터링을 통한 정보 전달 및 사회적 난제 해법 공모 활성화로 범사회적 기술기반 창업의식 및 기업가정신 고취 필요

■ (제언 2) 여성벤처기업 역량 강화 지원 방안

- 여성벤처기업의 특성 및 경영애로 사항 등에 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지원책 마련을 통한 질적 접근이 필요
- 여성벤처기업의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및 컨설팅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거래 시에는 상생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공급망 체계 내에서 비즈니스 역량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
- 여성벤처기업의 투자 유치 및 회수(EXIT)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훈련은 물론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매칭 기회를 높이고, 여성벤처기업 투자자에게는 세제 지원 등의 정부 지원 방안도 검토될 필요성이 있음
- 이외 세부적으로 여성벤처기업의 시설 현대화와, R&D 인력의 조직화, 산업재산권에 대한 법률 서비스 등의 적극 지원 필요

1. 서론

■ 저출산·고령화 시대,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해서는 여성 인적자원 활용이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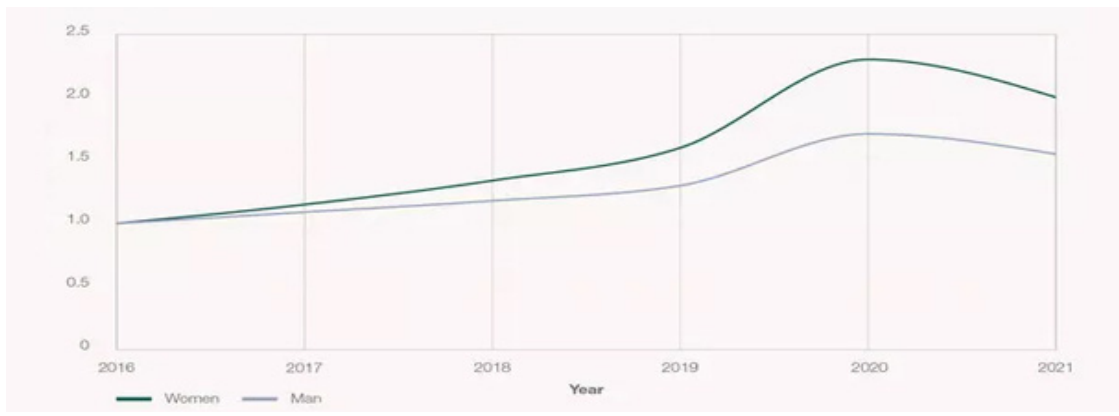
- 디지털 전환시대, 국가 경쟁력이 물리적 힘보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게 하는 지적 능력(brain power)에 의한 결정 경향이 크게 확대
- OECD 30개국을 대상('01년~'05년)으로 여성 인적자원 활용과 국가 경쟁력 간의 관계 분석결과, 여성의 경제활동이 국가 경쟁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다음으로 여성 리더 비율,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순임(강성애·류은영, 2008)

■ 해외 22개국, 지난 5년 간 여성 창업자 비율 2배 증가

- 해외 22개국의 LinkedIn 데이터에 따르면 여성 창업자의 비율은 지난 5년 동안 2배로 증가했으나, 남성 창업자 비율은 55% 증가에 그침(WEF, 2022)

[그림 1] 성별 창업률 추이(2016~202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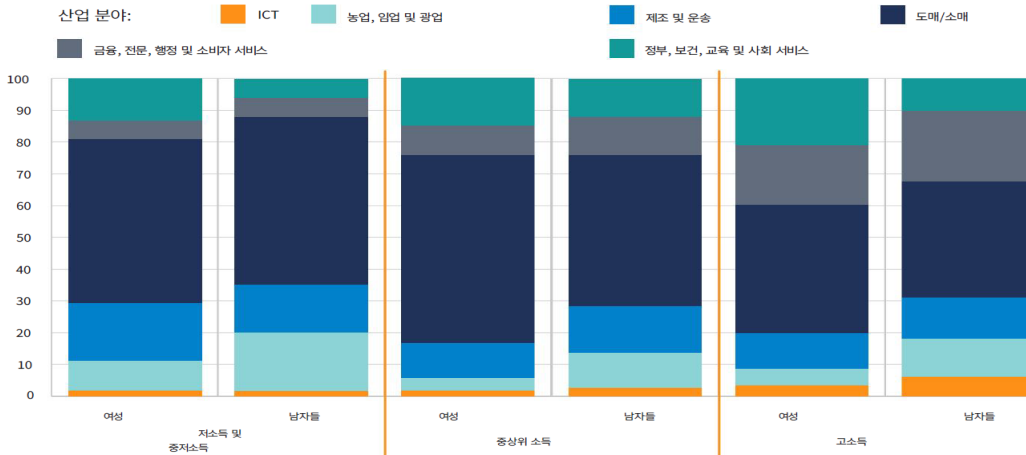


* 출처: World Economic Forum(2022), Global Gender Gap Report 2022,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벤처캐피탈 자금을 유치하는 ICT 분야에서 남성은 4.7% 창업하는 데 반해 여성은 2.7% 만이 창업(GEM, 2022)

- 전 세계 여성 기업가의 거의 절반이 도·소매 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여성 기업가 5명 중 1명(18.5%)이 정부, 보건, 교육 및 사회 서비스 부문에 종사(남성 10.1%)로 ICT 분야 여성의 창업 제고는 과제(GEM, 2022)

[그림 2] 초기단계 기업가의 성별 및 국민소득 수준별 산업분야



* 출처: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2022), GEM 2021/22 Women's Entrepreneurship Report

■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여성 인력의 개발 및 활용 측면에서 미흡한 실정

- 우리나라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중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증가 추세이나 OECD 국가들과 비교 시 낮은 수준으로 OECD 35개국 중 23위에 위치(21)

〈표 1〉 OECD 경제활동 참가율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 단위: %)

구분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한국	73.4	49.8	73.5	50.3	74.1	51.9	74.1	52.7	73.5	53.5	72.6	53.3
OECD 평균	68.9	53.3	68.8	54.0	68.7	54.2	68.8	54.7	68.8	55.3	68.0	55.1

* 자료: 통계청·ILO,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OECD)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301_OECD&conn_path=13

- 우리나라 여성인력은 선진국 대비 양적 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수준이나, 양성된 여성 인력의 활용 측면에서는 문제점을 보유(장하진, 2001)
- 투자된 여성 인력이 사장되거나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다면 이는 결국 국가 경쟁력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

■ 이에 본 고에서는 여성 인적자본 중 여성벤처기업을 중심으로 남성벤처기업과 차별되는 특성 탐색을 통해 새로운 경제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로서 여성벤처기업의 희망적 요소를 살펴보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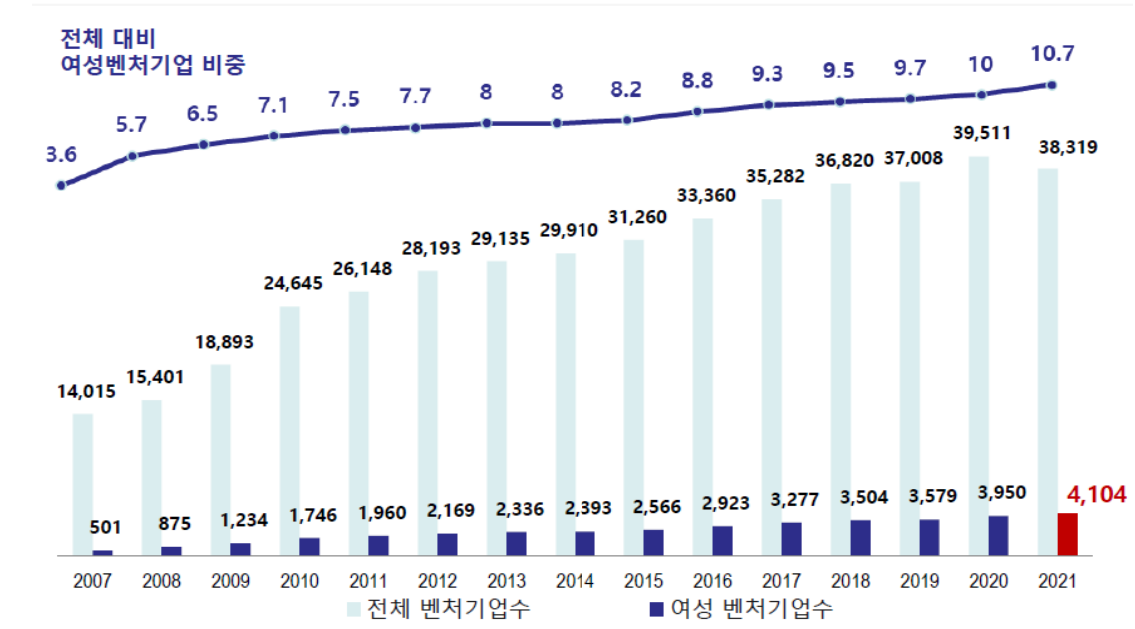
2. 여성벤처기업의 현황 및 중요성

가. 여성벤처기업의 현황

- 여성 벤처확인기업은 꾸준히 증가하여 '21년 전체 벤처기업 중 10.7%를 차지
 - '21년 기준 여성벤처기업은 전체 벤처기업 중 10.7%로 '07년 3.6% 대비 크게 증가. 최근 5년간 여성벤처기업의 증가율은 7.1%로 전체 벤처기업 증가율 2.7%보다 크게 앞지르는 상황

[그림 3] 연도별 여성벤처기업 수 및 전체 대비 비중

(단위: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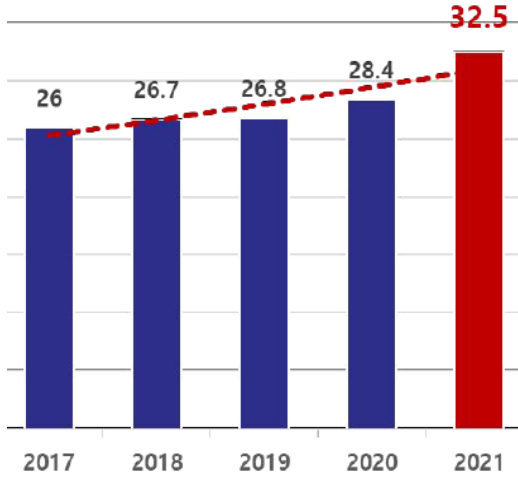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내부자료

- '20년 기준 여성벤처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28.4억 원으로 전체 벤처기업¹⁾ (52.9억) 대비 53.7%로 낮은 수준
 - '21년 여성벤처기업의 평균 고용규모는 14.3명으로, 30명 이상의 기업 비중은 8.1%로 수준(329개사)

1) 벤처기업협회(2021), 2021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그림 4] 연도별 여성벤처기업의 평균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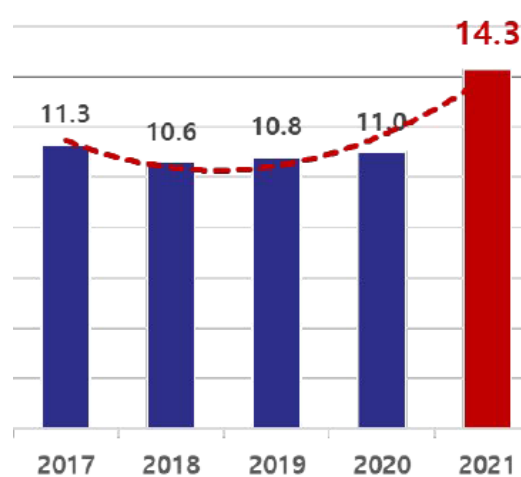
(단위 : 억원)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내부자료

[그림 5] 연도별 여성벤처기업의 평균 고용 수

(단위 : 명)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내부자료

■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고, 정보처리SW 업종도 증가세

- '21년 기준 전체 여성벤처기업(4,104개) 중 제조업이 6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다만, 제조업은 감소 추세, 정보처리SW 업종은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임

■ '21년 벤처기업확인제도 개편을 통해 신설된 '혁신성장 유형'의 여성벤처기업은 1,102개사(26.9%)로 확인

- 벤처확인제도 내 '벤처투자 유형' 비중도 '20년 6.7%에서 '21년 10.3%로 지속 적으로 증가하며 발전

■ '21년 벤처천역기업 739개사 중 22개사가 여성벤처기업으로 3.0%를 차지

- '22년 유니콘 기업(23개사) 중에도 여성 유니콘 기업 수는 1개사로, 여성기업의 점유율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

■ 기술기반 여성 창업기업 증가세

- 전체 창업기업 수에서 차지하는 여성창업기업의 비중은 큰 변동성이 없는데 반해,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으로 구성된 기술기반업종 창업의 여성기업 비중은 8만1천여 개로 전체 대비 44.1%를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

〈표 2〉 여성 창업기업 및 기술기반업종 현황

(단위: 개사,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창업기업 수	전체	1,190,177	1,256,267	1,344,366	1,285,259	1,484,667	1,417,973
	여성	551,682	585,737	632,073	595,484	693,927	660,616
	비중	46.4	46.6	47.0	46.3	46.7	46.6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 수	전체	190,674	198,911	212,237	220,607	228,949	183,713
	여성	68,882	73,993	82,199	87,567	92,815	81,006
	비중	36.1	37.2	38.7	39.7	40.5	44.1

* 기술기반 업종(OECD, EU 기준): 제조업+지식기반 서비스업(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사업지원 서비스, 교육서비스 등)

* 출처: 통계청 중소기업부, 창업기업동향, 업종별·성별 창업기업 수

■ 국내 여성기업 지원정책 현황

- 우리나라 전체 여성기업을 위한 지원정책은 창업벤처, 금융, R&D, 판로, 인력, 컨설팅, 교육 측면에서 진행. '99년 이후 22년 간 “여성기업육성사업”에 총 1,347억 원의 예산이 지원 (연평균 61억원) 되었으나 수요 대비 제한적인 수준임(중기부, '20.12)
- 여성벤처기업 지원사업은 여성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여성벤처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22년 예산 규모는 8억 원 수준임

〈표 3〉 국내 여성기업 지원사업

구분	사업명	지원내용
창업벤처	여성기업종합 지원센터 운영	여성창업자를 위해 창업보육시설 등 제공
	창업경진대회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여성창업자 발굴·포상
	여성벤처 활성화	BM개발, 코칭·네트워킹, 사업화 등 지원
	여성벤처펀드*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여성기업 투자재원 확충
	창업지원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등에 대한 사업화·성장 지원
	여성가장 창업지원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창업 지원
금융	기술 보증	여성기업 전용 특별보증 (여성기업 대상, 보증료 0.2%p 감면, 보증비율 95% 우대)
판로	디지털 판로지원	유통채널별 입점교육, 광고영상제작, 홈쇼핑 방송 및 e커머스 입점 지원
	해외진출 지원	전문가 컨설팅, 무역실무교육, 해외전시회 참가 등 지원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운영
인력	여성기업 일자리플랫폼	여성기업과 전문인력 간 일거리 매칭서비스 제공
컨설팅	여성경제인 DESK 운영	경영전략·기술·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상담 지원
교육	여성경제인 혁신역량 강화	여성CEO 최고경영자 과정, 경영연수 등 지원
기타	실태조사 등	여성기업 실태조사, 통합정보망 운영 등

* 여성벤처펀드 : 신규예산은 아니며, 모태펀드 회수재원과 민간출자액으로 '18년은 100억원(정부 60억원+민간 40억원), '19년은 추가 200억원(정부 120억원+민간 8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운용

* 출처 : 중소기업부(2019), 김보례(2020) 재인용을 기반으로 수정보완함

〈표 4〉 여성벤처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명	지원내용	예산(백만원)	
		'21	'22
여성벤처 창업 케어 프로그램	비즈니스교육 → 선배CEO 밀착코칭사업화과제해결 → 성과평가 및 발표, 투자유치 IR지원	460	360
여성벤처 경영혁신지원	최신 산업 트렌드 및 기업경영 등을 주제로 여성벤처기업의 경영혁신 교육 및 네트워킹, 판로 및 투자유치 등 연계 프로그램 기회 제공	40	40
민간협력 여성벤처 스타트업 육성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여성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민간협력 기반 보육 프로그램 및 투자 지원	-	400
	계	500	800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2022.2), 2022년 벤처기업경쟁력강화사업 기본계획

나. 여성벤처기업의 중요성

■ 여성 인적자원의 활용 정도가 국가 경쟁력 좌우

- 세계가 기술패권을 위해 글로벌 인재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인적자원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국가 경쟁력 제고에 영향
- 세계 선도국가로의 도약 및 유지를 위해서는 국가의 모든 인적자원 역량을 최대한 극대화(Maximization)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경쟁이 치열한 선진국으로 진입 이후에는 더욱 중요

■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건강한 벤처생태계 조성 필요

- 글로벌 차원의 우수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학생, 교수·연구원, 이민자, 외국인, 여성 등 다양한 주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쟁할 수 있는 건강하고 역동적인 생태 환경 조성이 필요
- 우리의 벤처생태계는 아직 다양성이 결여됨으로써 균형적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

■ 여성의 강점이 발휘될 수 있는 기술 및 산업 환경이 도래

-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바이오, 헬스, 생명과학, 정보통신 등이 발전하고, 사회·경제적 관심이 고조

- 산업 및 기술이 발전으로 산업 세분화, 다품종 소량 생산, 디지털 인프라 및 비즈니스 보급 등으로 원격 작업의 가능 등 산업 및 업무 환경이 급속히 변화
- 여성 인적자원이 가진 고유 특성과 강점이 발휘되어 제품·서비스의 경쟁력과 고객 만족도가 증가하고, 글로벌 차원에서도 지배력 강화가 예상

■ 여성 자원은 혁신의 아이콘이자 주요 주체자로서 충분한 역량 보유, 이미지 전환 필요

- 여성의 경제 활동 증가로 다양한 직장 경험과 경력을 보유한 우수 여성 인력의 다수 배출로 혁신 주체자로서 충분한 역량 보유
- 인문학 기반의 전통적 여성기업인과 달리 2000년대 이후 과학기술기반 고학력 여성 비중 증가로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는 등 여성의 고부가가치 창출력과 잠재력이 축적됨(한국여성벤처협회, 2022)

〈표 5〉 우리나라 연도별 공학계열 여성 졸업자 추이

(15세 이상 인구 기준, 단위: %)

구 분	2012	2014	2016	2018	2020
전문대학	15.4	15.5	14.4	15.1	14.5
대학	19.4	19.3	21.7	22.4	23.9
일반대학원	16.5	17.5	18.4	19.4	19.9

* 자료 : 통계청·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

-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은 모든 사업 부문과 고성장 사업을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등 업종 편중성으로 인해 여성의 가치와 잠재성, 고부가가치 창출력 측면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저평가
- 우리나라 여성 인적자원의 역할 확대를 위해 범사회적으로 여성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혁신 이미지 강화 필요

3. 여성벤처기업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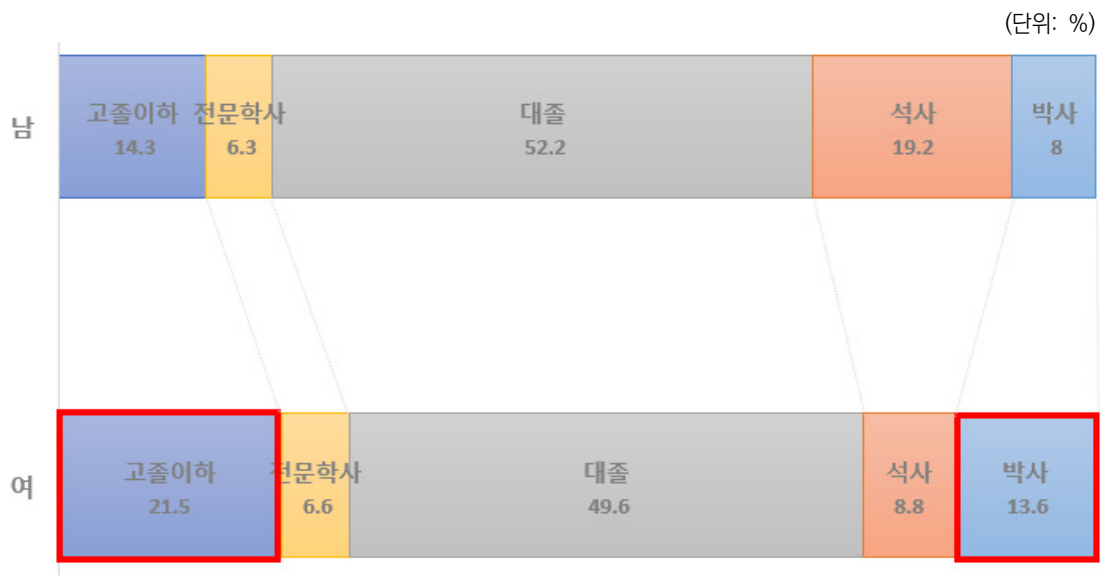
■ 여성벤처기업의 특성 분석을 위해 「2021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원자료 (raw data)를 활용하여 남녀 벤처기업가의 사업 특성 비교분석을 실시

-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기업가의 성별을 기준으로 t-test 및 교차 분석을 실시

■ 기업가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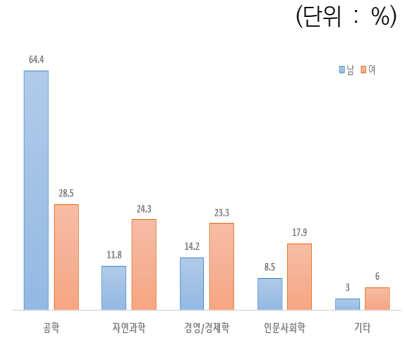
- 벤처 창업은 주로 30대, 40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연령대에서는 여성벤처기업가가 남성벤처기업가보다 다소 더 높은 비중을 보임
- 여성벤처기업가의 박사 및 고졸 이하 학력 비중이 남성벤처기업가 대비 높게 나타남. 여성벤처기업가의 전공은 대체로 고른 분포 경향을 보인 반면 남성벤처기업가는 공학 전공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남

[그림 6] 창업 당시 최종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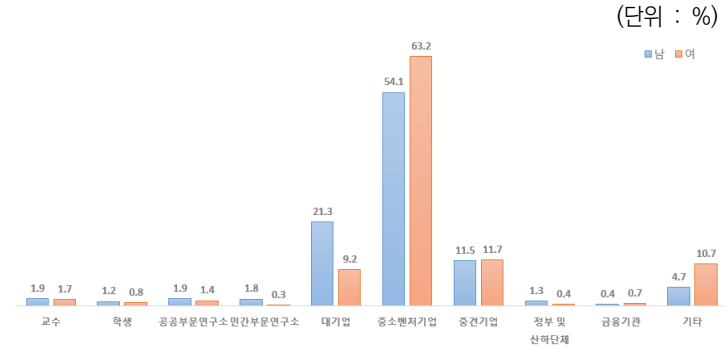


- 벤처기업가의 이전 직장으로 중소기업 출신이 남녀 모두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가운데, 남성벤처기업은 대기업 출신(21.3%)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여성벤처기업은 대기업(9.2%), 중견기업(11.7%), 기타(10.7%) 비중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다양한 루트를 통해 창업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보임

[그림 7] 창업 당시 전공



[그림 8] 창업 직전 근무지



〈표 6〉 기업가 특성

구 분		남	여	χ^2
창업 당시 연령대	20대 이하	2.3	0.1	106.377***
	30대	32.9	33.0	
	40대	43.5	45.8	
	50대	16.8	18.1	
	60대 이상	4.6	2.4	
	n	35,796	3,303	
창업 당시 최종 학력	박사	8.0	13.6	400.810***
	석사	19.2	8.8	
	대졸	52.2	49.6	
	전문학사	6.3	6.6	
	고졸이하	14.3	21.5	
	n	35,796	3,304	
창업 당시 전공	공학	64.4	28.5	1407.675***
	자연과학	11.8	24.3	
	경영/경제학	14.2	23.3	
	인문사회학	8.5	17.9	
	기타	3.0	6.0	
	n	30,691	2,595	
창업 직전 근무지	교수	1.9	1.7	557.733***
	학생	1.2	0.8	
	공공부문연구소	1.9	1.4	
	민간부문연구소	1.8	0.3	
	대기업	21.3	9.2	
	중소벤처기업	54.1	63.2	
	중견기업	11.5	11.7	
	정부 및 산학단체	1.3	0.4	
	금융기관	0.4	0.7	
	기타	4.7	10.7	
	n	35,798	3,304	

*:p<0.05, **:p<0.01, ***:p<0.001

■ 매출 구조

- 남성벤처기업은 대기업 및 대기업 1/2차 벤더에서 발생하는 매출 비중이 높고, 여성벤처기업은 중소·벤처기업 및 소비자 매출(B2C)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표 7〉 매출 구조

(단위: %)

구 분		남	여	t-value
매출 구조	대기업 또는 그룹사 소속	12.5	9.2	7.886***
	대기업 납품 1/2차 벤더	11.7	5.9	17.625**
	중소 및 벤처기업	43.0	47.3	-5.660***
	중견기업	7.8	8.2	-1.107
	소비자 매출	6.5	11.1	-10.001***
	정부/공공부문 매출	13.6	13.9	-0.674**
	해외 매출	4.9	4.4	1.454

*:p<0.05, **:p<0.01, ***:p<0.001

[그림 9] 매출 구조

(단위: %)







■ 해외 사업 방식

- 여성벤처기업은 ‘수출 없음’ 비중이 높고, 직·간접 혼합방식 수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벤처기업은 직접 수출 및 간접 수출 형태의 단독 방식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8〉 해외 사업 방식

(단위: %)

구 분		남	여	χ^2	남녀 답변 비율(■남 ■여)
해외 사업 방식	직접 수출	13.7	5.8	236.724***	
	간접 수출	3.2	0.6		
	직접 + 간접 수출	4.6	7.0		
	수출 없음	78.4	86.7		
	n	32,054	2,813		

*:p<0.05, **:p<0.01,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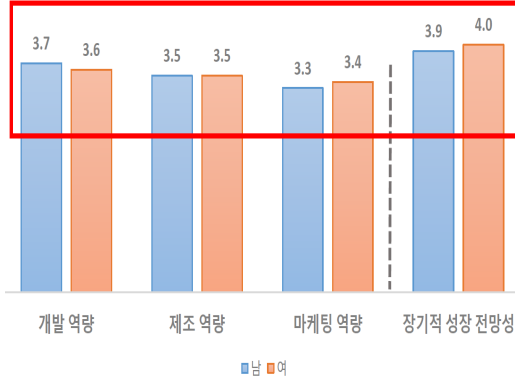
■ 보유 역량 및 장기적 성장 전망

- 경쟁사 대비 보유 역량 중 남성벤처기업은 개발 역량을 여성벤처기업은 마케팅 역량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기업의 장기적 성장 전망성에 대해 벤처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이었으며, 이는 남성벤처기업보다 여성벤처기업에서 더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여성벤처기업의 개발 및 제조 역량이 남성벤처기업에 크게 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케팅 역량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표 9〉 경쟁사 대비 보유 역량 수준 및 기업의 장기적 성장 전망성

(단위: 점)

구 분		남	여	t-value
경쟁사 대비 보유 역량 수준	개발 역량	3.7	3.6	6.067***
	제조 역량	3.5	3.5	-1.876
	마케팅 역량	3.3	3.4	-2.148*
장기적 성장 전망		3.9	4.0	-11.812***



*:p<0.05, **:p<0.01, ***:p<0.001,

* 5점 척도 : 1. 매우 낮음(매우 부정적) ~ 5: 매우 높음(매우 긍정적)

■ 제조 방식 및 시설 현대화

- 여성벤처기업은 자체 제조 및 전부 외주 방식에서 남성벤처기업 대비 높게 나타남
- 스마트 공장 도입은 여성벤처기업이 남성벤처기업 대비 다소 적었으나, 향후 도입 의향은 여성벤처기업에서 2배 가까이 더 높은 의사를 보임
- 시설 현대화에 의사가 여성벤처기업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만큼 이의 지원이 강화된다면 여성벤처기업의 제조 역량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전망됨

〈표 10〉 제조 방식 및 스마트 공장 도입 의향

(단위: %)

구 분		남	여	χ^2	남녀 답변 비율(□남 ■여)
제조/비제조	자체 제조	35.3	39.3	583.508***	
	제조+외주	34.8	29.5		
	전부 외주	5.7	15.6		
	비제조	24.2	15.5		
	n	35,798	3,303		
스마트공장 도입 여부	예	8.8	7.7	3.984*	
	아니오	91.2	92.3		
	n	32,055	2,813		
스마트공장 도입 의향	예	14.1	26.8	300.285***	
	아니오	85.9	73.2		
	n	29,227	2,596		

*:p<0.05, **:p<0.01, ***:p<0.001

■ 기술 특성 및 경쟁력 수준

- 약 30%가 넘는 벤처기업들이 기업의 주력 기술이 4차 산업과 연관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남성벤처기업보다 여성벤처기업에서 더 높게 나타남
- 기술 수준에 있어 세계 유일의 기술 보유에 대한 인식도 남성벤처기업보다 여성벤처기업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임
- 다만, 여성벤처기업의 경우 ‘R&D 조직 인력 없음’ 비중이 남성벤처기업 대비 더 낮게 나타나, R&D 인력에 대한 보유 인식은 높으나 연구 인력의 조직화 정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표 11〉 4차 산업 관련성과 기술 수준 및 보유 역량

(단위: %, 점)

구분		남	여	x ² /t-value	남녀 답변 비율
주력 기술의 4차 산업연관 여부	예	33.8	37.1	14.187***	
	아니오	66.2	62.9		
	n	35,797	3,304		
세계 유일의 기술 보유	예	13.5	17.3	31.712***	
	아니오	86.5	82.7		
	n	32,055	2,813		
R&D 조직 보유	해외 현지연구소 보유	0.0	0.0	248.609***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61.6	53.3		
	해외 및 국내 연구소 보유	0.1	0.0		
	연구개발 전담조직 보유	14.8	22.4		
	연구개발 인력 보유	9.8	15.2		
	R&D 조직 인력 없음	13.7	9.1		
	n	32,056	2,813		

1), 2) 척도 1: 숫자가 낮을수록 경쟁력 높은 것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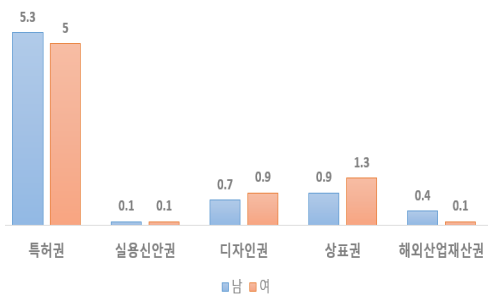
*:p<0.05, **:p<0.01, ***:p<0.001

- 남성벤처기업은 특허권과 해외 산업재산권을 다소 많이 보유하고 있는 반면, 여성벤처기업은 디자인권과 상표권 수가 더 많았는데, 이는 소비자 매출 비중이 높은 특징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12〉 산업재산권 보유 및 출원 현황

(단위: 건)

구분		남	여	t-value
산업재산권 보유 (건)	특허권	5.3	5.0	2.465*
	실용신안권	0.1	0.1	1.880
	디자인권	0.7	0.9	-3.779***
	상표권	0.9	1.3	-7.290***
	해외산업재산권	0.4	0.1	11.895***
	산업재산권 (전체)	7.5	7.4	2.211



*:p<0.05, **:p<0.01, ***:p<0.001

■ 자금 조달 및 투자

- 자금조달은 남녀 벤처기업 모두 정부정책 금융 및 일반금융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다만, 남성벤처기업이 여성벤처기업보다 더 다양한 자금조달 방식(IPO, 벤처캐피탈/엔젤투자, 회사채 발행)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신규자본조달 규모도 남성벤처기업이 약 2.1배 높게 나타남
- 투자 규모는 여성벤처기업보다 남성벤처기업이 설비, R&D, 해외 투자 등 모든 측면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작은 여성벤처기업의 매출 규모와 관련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표 13〉 '20년 신규 자금조달 규모 및 방법, 투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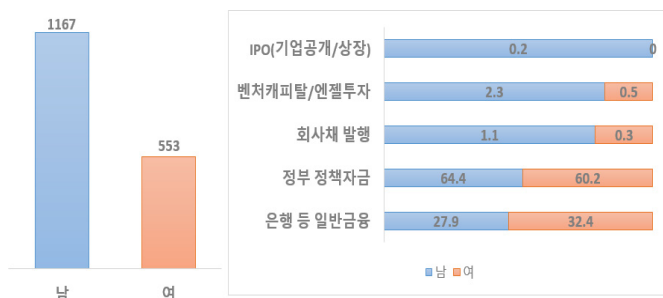
(단위: 백만 원, %)

구 분		남	여	t-value	
자금조달	'20년 신규자본조달 규모(백만 원)	1167	553	7.338***	
	'20년 신규 자금조달 방법 (%)	IPO(기업공개/상장)	0.2	0.0	7.964***
		벤처캐피탈/엔젤투자	2.3	0.5	13.486***
		회사채 발행	1.1	0.3	9.575***
		정부 정책자금	64.4	60.2	4.368**
은행 등 일반금융	27.9	32.4	-4.849***		
투자 (백만 원)	총 투자액	520.0	331.2	12.684***	
	국내 설비투자	170.6	115.3	5.701***	
	국내 R&D투자	259.4	160.2	16.869***	
	해외 투자	20.8	0.7	6.110***	

*:p<0.05, **:p<0.01,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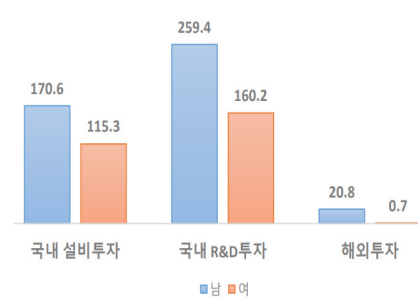
[그림 10] '20년 신규 자금조달 규모 및 방법

(단위 : 백만 원, %)



[그림 11] 투자 규모

(단위 :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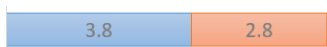



■ 투자 및 M&A 경험

- 벤처기업 전반적으로 투자 유지 경험이 매우 낮은 가운데, 크라우드 펀딩은 남성 벤처기업 대비 여성벤처기업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벤처기업의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자 매출 비중과 관련성이 큰 것으로 추정됨
- 이외 엔젤 및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 경험은 여성벤처기업이 남성 벤처기업 대비 낮게 나타남

〈표 14〉 투자 유치 유형별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남	여	χ^2	남녀 답변 비율(남 여)
크라우드 펀딩 경험 여부	예	1.8	5.8	198.237***	
	아니오	98.2	94.2		
	n	32,055	2,813		
엔젤투자, 엑셀레이터 투자 경험 여부	예	3.8	2.8	8.113**	
	아니오	96.2	97.2		
	n	32,055	2,813		
벤처캐피탈 투자 경험 여부	예	7.1	6.0	4.577*	
	아니오	92.9	94.0		
	n	32,055	2,813		

*:p<0.05, **:p<0.01, ***:p<0.001

- 벤처기업 전반적으로 M&A 경험률이 매우 낮게 나타남. 특히, 여성벤처기업에서 더 낮았으나, 타기업 인수합병에 응할 의향은 남성벤처기업 대비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M&A 기회가 적극 제공될 경우 가시적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됨

〈표 15〉 M&A 경험 여부 및 향후 의향

(단위: %)

구분		남	여	χ^2	남녀 답변 비율(남 여)	
경험	M&A 경험 여부	예	2.3	0.9	22.246***	
		아니오	97.7	99.1		
		n	32,055	2,813		
의향	타기업 M&A 의향	예	5.7	3.8	18.422***	
		아니오	94.3	96.2		
		n	32,055	2,813		
의향	타기업 인수합병에 응할 의향	예	5.9	8.0	20.684***	
		아니오	94.1	92.0		
		n	32,055	2,813		

*:p<0.05, **:p<0.01, ***:p<0.001

■ 경영애로 사항

- 여성벤처기업은 경영애로로 자금조달·운용 애로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국내 판로개척, 개발기술의 사업화 순으로 애로 정도가 높게 나타남. 전반적으로 남성 벤처기업 대비 여성벤처기업에서 더 크게 애로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남성벤처기업들과 비교 시 해외(국내)시장 개척 애로, 자금조달·운용 애로, 필요인력 확보 및 유지 관리 애로 순으로 애로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표 16〉 경영애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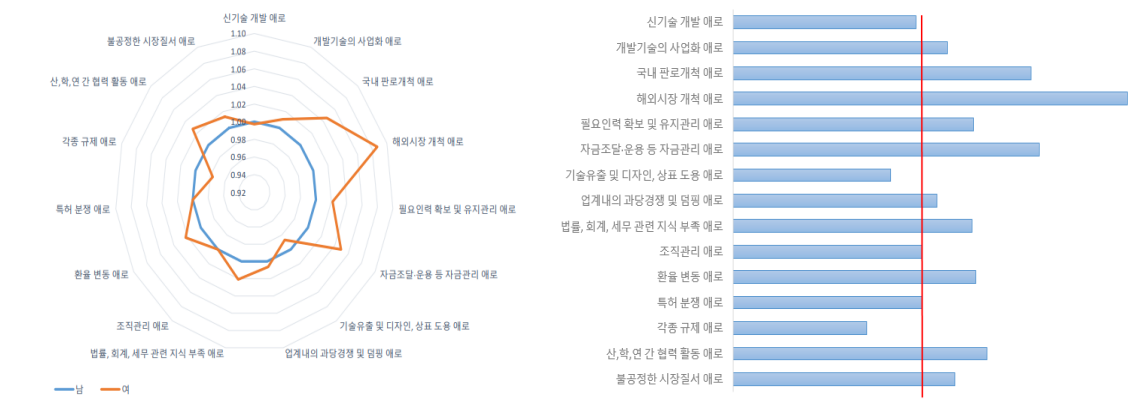
(단위 : 점)

구분	남	여	t-value
신기술 개발 애로	3.67	3.66	1.304
개발기술의 사업화 애로	3.76	3.80	-3.250***
국내 판로개척 애로	3.70	3.87	-13.434**
해외시장 개척 애로	3.45	3.75	-17.777***
필요인력 확보 및 유지관리 애로	3.70	3.78	-5.800***
자금조달·운용 등 자금관리 애로	3.85	4.04	-15.587***
기술유출 및 디자인, 상표 도용 애로	3.01	2.97	2.784*
업계내의 과당경쟁 및 덤핑 애로	3.20	3.22	-1.348
법률, 회계, 세무 관련 지식 부족 애로	2.87	2.93	-3.912***
조직관리 애로	2.96	2.96	0.259
환율 변동 애로	2.66	2.72	-3.680***
특허 분쟁 애로	2.63	2.63	0.216
각종 규제 애로	2.98	2.91	6.027***
산,학,연 간 협력 활동 애로	2.93	3.01	-7.454***
불공정한 시장질서 애로	2.90	2.94	-3.111**

*:p<0.05, **:p<0.01, ***:p<0.001

〔그림 12〕 남성벤처기업을 100으로 했을 때 여성벤처기업의 경영애로

(단위: 점)



■ 결과 종합

- 우리나라 기술기반 업종 창업기업 중 41.4%가 여성기업으로 계속해서 여성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벤처확인기업도 전체 벤처기업의 10.7%로 '07년 3.6% 대비 크게 증가
- 남성벤처기업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고학력 우수인력의 벤처 진입과 높은 R&D 인력 보유기업 비중, 기술 수준 및 미래 사업 전망에 대한 높은 자신감, 시설 현대화에 대한 적극적 마인드 등은 역동적 벤처생태계 조성과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에 희망적 요소로 평가
- 다만, 여성벤처기업의 경우 아직 기업 규모 및 수적인 측면에서 열세이고, 해외 수출과 R&D 인력의 조직화 정도가 미흡하며 낮은 투자유치와 다양하지 못한 자금조달처 등은 한계점으로 작용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 벤처기업 간 상호 보완적 양상으로, 여성벤처기업이 갖는 열위 요소들에 대한 적극적 교육·훈련과 제도적 지원 노력을 통해 보완되어 여성 벤처기업의 지닌 강점이 충분히 발휘된다면 국가 경쟁력 제고에 상당한 기여가 있을 것으로 평가됨

4. 시사점

1) 기반 및 환경 조성

■ 여성벤처기업 관련 조사·연구 활성화

- 그간 여성벤처기업 관련 체계적인 자료 축적과 학문적 접근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여성벤처 관련 통계자료 확보와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한 정보의 공급 확대가 중요
- 이를 활용한 여성벤처기업 연구 활성화를 통해 대학 및 연구기관 내 전문가 육성 필요

■ 여성벤처기업 창업 촉진을 위해 정책 대상(Target)을 명확히 설정하여 추진

- 혁신형 여성 창업이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는지 철저한 분석과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직장 경력 및 전문지식 보유자, 해외 경험자, 과학기술 고학력자 등 여성벤처 창업 촉진을 위해 잠재성이 높은 정책 대상을 명확히 설정하여 정책 추진

■ 해외 여성 기술창업 모니터링

- 전 세계 여성 기술기반 창업 트렌드를 분석, 혁신형 여성 창업이 활발히 일어나는 업종 및 비즈니스 모델 등을 모니터링하여 국내에 정보를 전달하고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
- 여성 창업 아이템 및 비즈니스 모델 정보, 지원 정책 및 환경, 근무 방식, 규제 등 사전 탐색 정보 제공으로 여성의 기술기반 창업 제고를 위한 정보 확대 필요

■ 사회적 난제 해법 공모 활성화로 기업가정신 및 기술창업 의식 제고

- 범사회적으로 여성의 기업가정신 강화가 필요. 다양한 사회적 난제 제시를 통한 해법 아이디어 공모전을 활성화 하고,
- 맘 카페, 지역 커뮤니티 등 집단 지성을 활용한 기술창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수요 조사 등으로 여성 창업 의식 고취 필요

2) 기업 역량 강화

■ 사업 역량 강화

- 여성벤처기업은 초기성장기에 위치한 기업 비중이 높고, 장기적 사업 전망에 대해 낙관적 경향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흡수 역량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여성벤처기업의 특성 및 경영애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고려한 실효성 높은 지원책 마련을 통한 접근이 필요
- 여성벤처기업의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및 컨설팅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거래 시에는 상생할 수 있는 협력체계의 구축을 통해 공급망 체계 내에서 비즈니스 역량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
- 아울러 여성벤처기업의 경우 자체 생산 및 시설 현대화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시설 현대화에 대한 적극 지원 방안 필요

■ 기술 역량 강화

- 여성벤처기업은 남성벤처기업과 비교하여 기술 역량이 낮지 않으나,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성장 애로요인으로 지적, 개발 역량이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됨
- 대학, 연구소, 관련 지원기관 등과의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여성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R&D 인력의 조직화를 위한 지원책이 모색될 필요성이 있음
- 아울러 여성벤처기업이 경쟁우위를 보이고 있는 디자인권과 상표권 외에 기술보호를 위한 특허권 및 해외 산업재산권에 대한 법률지원도 병행이 필요

■ 마케팅 역량 강화

- 여성벤처기업은 남성벤처기업에 비해 신제품개발, 판매, 유통 등 마케팅 역량이 다소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여전히 마케팅분야 한계점으로 인해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소비자(B2C) 매출 비중 등으로 상대적으로 시장 확대 의지가 높은 만큼,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 등에서도 여성벤처기업의 마케팅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컨설팅 지원이 제공될 필요성이 있음

■ 자금조달·투자 지원

- 여성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다양한 자금조달 및 회수(EXIT)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훈련과 관련 기관(VC, CVC, M&A 중개기관 등)과의 매칭 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 끝으로 여성벤처기업의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 등과 같은 정부 지원책 마련도 검토될 필요성이 있음

〈표 17〉 여성벤처기업의 역량 강화 지원 방향성 요약

구분	지원 방향성
1	• 여성벤처기업의 특성 및 경영애로 사항 등을 종합분석 자료를 근거로 한 질적 접근책 필요
2	• 교육·훈련 및 컨설팅 강화
2	• 자체 생산 및 시설 현대화 지원
3	• R&D 조직화 지원
4	• 산업재산권에 대한 법률 지원
5	• 투자 유치 및 회수(EXIT)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과 적극적 매칭 기회 제공 • 여성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세제 지원 등) 방안 검토

참고자료

[국내 문헌]

- 강성애·류은영(2008), 「여성인적자원의 활용과 국가경쟁력과의 관계 연구: OECD국가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7권 제2호(2008): 175~208
- 김보례(2020), 「여성기업 경영환경 실태 및 개선방안」, 여성기업 정책포커스 제20-01호, 여성경제연구소
- 벤처기업협회(2022), 「2021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 장하진(2001), 「여성 인적자원 활용과 국가 경쟁력」.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기고문
- 중소벤처기업부, 내부자료
- 중소벤처기업부(2019), 「2019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 촉진계획」
- 중소벤처기업부(2020), 「'20~'24년 제1차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 중소벤처기업부(2022.2), 「2022년 벤처기업경쟁력강화사업 기본계획」
- 한국여성벤처협회(2022), 「대한민국 경제 도약을 위한 여성벤처기업 미래전략」, 2022 여성 벤처 정책토론회 자료집(2022. 11. 28)
- 통계청·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

[외국 문헌]

- World Economic Forum(2022), *Global Gender Gap Report 2022*
-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2022), *GEM 2021/22 Women's Entrepreneurship Report*

[인터넷 자료]

- 통계청·ILO,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OECD),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301_OECD&conn_path=I3(검색일: 2022. 12. 25)
- 통계청·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동향, 업종별·성별 창업기업 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2&tblId=DT_142N_F203A&vw_cd=MT_ZTITLE&list_id=J2_2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E1(검색일: 2022. 12. 25),

KOSI 중소기업 포커스

발행인 : 오동윤

편집인 : 최세경

발행처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77 (신대방동 686-70) (07074)

전화: 02-707-9800, 팩스: 02-707-9894

홈페이지: <http://www.kosi.re.kr>

인쇄처 : 주식회사 위드원커뮤니케이션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연구진)의 견해이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지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